

월명동의 가치

작성일 : 2012. 5. 17.(목) 오전 10시 20분

작성자 : 장정임

(수요말씀에 월명동에 대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 월명동의 가치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던 중 99년 이후 월명동에 붙어 닦쳤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떠올랐고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월명동은 선생을 상징한다.
고로 월명동을 빼앗기면
선생을 빼앗기는 것과 같았다.

내가 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나타났느냐?
육은 육으로 통하지 않느냐.
전능한 신일지라도
육신 가진 너희 인생들과 통하려면
육신이 필요했다.
고로 나는 선생을 택하였고
선생 역시 나의 뜻을 받아 나의 육이 되어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이루어 주었다.

헌데 선생이 해외 선교를 펼치려
월명동을 떠났을 때
사악한 무리들은
너희들이 선생과 하나 되지 못한 틈을 타서
월명동을 삼키려 했다.
곧 선생을 너희로부터 빼앗으려 했다.

선생을 잃는다면
너희가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어찌 시대를 준비하는 신부가 될 수 있었겠느냐.
사탄은 이 마지막 사랑의 역사를 막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너희에게서
선생을 빼앗아 가려 했다.
기억하느냐? 그 때의 환란을...,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때 악인들이 금전적인 문제를 내세우며 월명동을 빼앗으려 했음을 기억합니다.)

그 때, 선생은 해외에서 얼마나 속이 탔는 줄 아느냐?

내게 얼마나 울며불며 매달린 줄 아느냐?

월명동은 선생을 상징하기에
빼기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다.

선생 자체가 섭리역사이기에
월명동을 빼기면 섭리역사를 빼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선생이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나무 하나, 돌 하나, 땅 한 뼘 얻은 것이
곧 생명들을 전도하는 것을 상징하였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기어이 야심작을 비롯한
갖가지 하늘 작품을 세운 것이
곧 생명들을 멋진 하늘 신부로 변화시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그가 모든 인생을 걸고 이론
섭리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월명동이였기에
이를 빼앗기는 것은
섭리역사 자체인 선생을 빼앗기는 것과 같았고
그동안 신부라고 뽑아 놓은 너희들을
다 빼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모든 영적인 상황이 육에 반영되어 나타났으니
사탄이 너희와 선생의 교통을 막아
사랑을 끊어 놓으려 수작을 부려
그들에게 속한 육체를 통해
선생을 상징하는 월명동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다.

월명동은 하늘 역사의 핵심 근거지이다.
곧 이 시대 섭리역사의 핵심이 선생이지 않느냐.
선생을 중심으로 섭리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니
월명동은 마치 영적 싸움에서의 하늘 편 교두보와 같다.
모든 작전과 지휘가 거기에서 시작된다.
헌데 이를 빼앗기면 어찌 싸움에서 이기겠느냐.
수십만의 병사가 있어도 수장의 목을 빼앗기면
싸움에서는 패배하게 된다.
사탄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한 지역에서도 핵심 건물이 크게 들어서면
그 건물로 인해 주변에 작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대도시가 되듯
월명동은 영적 전쟁의 교두보가 되는 곳이기에
이곳이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
영적 싸움의 승패가 좌우됨을 상징하여 보여 준다.

선생이 월명동을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고
귀히 여기며 정성을 다하는 것은
월명동이 지상에 삼위가 거하는 곳이기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바로 성삼위를 중심한
섭리역사의 모든 진술과 전략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며
이곳의 상황이 바로
섭리사의 영적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마치 곳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전보를 올리는 것과 같다.
보다 완벽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세우는 공적비와 같으니
월명동이 개발되는
모든 상황과 진행 상태를 세밀히 보면서
너희 모두는 하나같이 이에 힘을 더하여
월명동 자연성전의 개발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고
이로써 지구촌 모두가 섭리의 땅이 되고
섭리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곳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님, 그리고 보면 월명동 개발 역사도 그렇고 선생
님께서 전반기에 축구를 통해 전해 주신 메시지도
그렇고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계 차원 모두에 해당되
는 모두 생명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생의 육신을 쓰고
뜻 없이 진행하는 것이 있었겠느냐.
깨닫고 보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모르니 가치를 못 느껴 홀대하는 것이지.
월명동도 선생도 온전히 깨닫고 대할 때
그 가치대로 대할 수 있으니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가치 있게 대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